

전북도정 무능·허위·기강해이 ‘총체적 난맥’

새만금 국제공항 ‘점점이 암초’ 적자 우려에 건립 제동

새만금섬배리감사결과26건 지적
투자협약 실적39%에 그쳐 ‘허상’
폭우 시기 지하차관 브리핑 빈축
공무원 해이·비위 의혹 지속 제기

〈2〉
A- 지난 2023년 열린 새만금세계섬
배리대회 실패는 국제적 망신뿐 아니
라 도민들의 사기저하와 패배주의로
이어져 여진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올해 대회 감사를 벌인 결
과를 내놓았는데 전북도를 비롯해 대
회조직위, 여가부 등 총 7개 기관에 26
건의 주의 통보, 개선 요구를 했다. 특
히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7명은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하고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에 이
목이 쏠리는 가운데 전북도 무능행정
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B- 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최근 임시
회에서 “전북도 경제 기업파트가 보여
주기식 협약 남발을 통해 도민을 기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민선 8기 210
건 투자협약을 체결, 16조 5천251억원
의 투자와 1만8천662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하다”고
전제한 뒤 “실제 기업들의 실제 투자액
은 약 6천399억원으로 계획 대비 3.9%
수준에 불과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
적했다.

C- 전북도 환경산림국은 지난 7월 도
내 전역에 극한 호우가 내려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엉뚱한 자화자찬식 브리

핑을 내놔 빈축을 샀다.
폭우, 장마, 산사태 위험, 연일 폭염경
보 등 본격적인 기후환경위기 시기가
도래해 비상상황을 맞은 가운데 전북
도 관계부서가 생뚱맞은 자화자찬 브
리핑 자료를 내놓은 것.
극한폭우가 며칠 간 전북지역을 휩
쓸면서 용산 대통령실에도 비상이 걸
려 경남과 호남권에 긴급복구자금을
검토한 시기였지만 정작 전북도는 탁
상행정에 국한된 상반기 성과를 대대
적으로 알렸다.
이날 “2025년 상반기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대, 도민의 생활 속 환경복지 실

현,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녹색 인프
라 확대 및 산림가치 증진 등 환경산림
분야에서 도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기
틀을 단단히 다졌다”며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집
중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본보 통화에서 “각 국별로 돌아가는 이
례적인 브리핑이다 보니 발표시기까지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북도 D 국장은 아들이 운영하는 사
업장에서 명절 선물용 상품을 수년 간
다량구매해 지인들에게 돌려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비난을 자
초했고 이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퇴직했다.
산하기관 E 전 간부는 스톡킹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F 간부 역시 대기발령
조치됐지만 연차, 휴가 등을 쓰고 사실
상 재택근무를 하는 등 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청 팀장급 공무원은 “지금도 도 산
하기관 1~2에서 내부잡음이 일고 있고
분청 국장, 과장 일부도 뒷 말이 나오는
등 도청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수선
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청정수소 시대’ 선도
전북도가 24일 부안에서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의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중훈 도 경제
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부안군>

전북-광주-전남 ‘호남 관광문화주간’ 공동 개최

29일부터 서울 대규모 홍보관 운영
전북, 대표 축제·향토 음식 소개
하나투어와 특별 여행상품 출시

전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손
을 잡고 호남권의 매력을 알리는 대규
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북·광주·전남은 9월 29일부터 10
월 17일까지 ‘세 갈래의 길, 하나의 여
정’을 슬로건으로 2025 호남관광문화
주간을 공동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역에 공동 관광
홍보관이 문을 연다.
9월 29일부터 2주간 운영되는 홍보
관은 수도권 교통 거점의 강점을 활용
해 귀성객과 수도권 여행객을 대상으
로 호남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한다.
전북은 임실N치즈축제(10.8~12), 군
산 시간여행축제(10.9~12), 김제 지
평선축제(10.8~12), 순창 장류축제
(10.17~19) 등 도내 대표 축제를 집중
홍보하며, 쌍화차·추어탕·풍천장어 등
가을철 향토 음식도 선보인다.

또 3개 시도가 하나투어와 손잡고 기
획한 1박 2일 특별 여행상품도 출시된
다. 광주 ACC와 전일빌딩, 전주 한옥마
을, 목포 유달산 등 각 지역의 대표 관
광지를 연계한 코스와 지역별 미식 체
험을 결합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
공한다.
호남관광문화주간에는 관광객 맞춤
인센티브도 준비됐다. ▲KTX 운임 최
대 30% 할인과 숙박비 3만 원 지원(데
일텔), ▲내일로 패스 소지자 숙박비 1
박 1만5천 원 할인(최대 2박), ▲7만 원

이상 숙박 시 2만 원(자체), 5만 원(문체
부) 할인 혜택이 마련됐다. 전북은 여기
에 ‘전북투어패스 1+1 이벤트’를 더해
개별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수려한 자연환
경과 유구한 문화유산 등 한국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관광박물
관”이라며 “전북과 광주, 전남이 한데
모여 추석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으며,
호남이 한국관광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지 밝혀
“사법개혁, 쇄꼴은 단김에 빼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
이 뭐라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가 추진한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
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
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
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
다”며 이같은 글을 공개했다.
앞서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
다. 쇄꼴 단김에 빼자”라면서 조 대법
원장을 축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
하기로 의결했고, 조 대법원장이 청문

회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 대표인 정 대표
가 거듭 조 대법원장 축출입장을 밝히
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태가 발
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또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 대법원
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한 뒤에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지난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
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
택했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새로
운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4일 당시 조희
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
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
삼스러운 것은 없다”고 거듭 조 대법원
장 청문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김경수 대
법원장 사퇴 촉구 영상을 공개한 뒤 “내
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
을 강력 비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GO MUJU

오색으로 물든 바람
온산을 뚫고
하늘 품으로 들어지는 낙엽
여운으로 쌓이는 가을

가자, 우주로!
그리움 가득한
자연특별시 우주의 가을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자연특별시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

부안서 청정수소 ‘하루 1톤’ 생산…친환경 허브 도약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수소기지 준공
청정수소로 탄소제로 에너지 실현 지역수소교통·에너지 활용 기대

전북자치도가 수소생산 경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24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서 문을 열고 본격 청정수소 생산에 들어간다.

이번 생산기지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 생산 기술을 상업적 규모로 구현한 최초의 사례로, 전북은 수소 생산부터 공급, 활용까지 연결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경기 의원을 비롯해 한국수소연합 이경진 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김형일 본부장, 현대건설 김재영 부사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김상민 본

부장과 참여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2022년 6월~2025년 12월) 추진됐으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등 4개 기업이 함께 사업을 수행했다.

기지는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함으로써 수소를 추출하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이다.

생산된 수소는 압축 과정을 거쳐 부안 수소충전소와 연구시설에 공급된다.

총사업비는 119억 7천만 원이며, 이중 국비 54억 3천만 원을 포함해 도비 10억 원, 군비 20억 원, 민자 35억 4천만 원이 투입됐다. 부지 5,426㎡, 건축면적 1,500㎡ 규모로 조성된 이번 기지는 2.5MW급 수전해 설비를 기반으로 수소를 압축(250bar)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출하 설비도 함께 갖췄다.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24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서 문을 열고 본격 청정수소 생산에 들어간다. <사진=부안군>

사업의 핵심 기술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시공을 담당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전해 설비의 안전관리와 수익모델 개발을 맡았다.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와 테크로스환경서비스는 수처리와 출하 설비 구축, 시운전 등을 수행했다. 민간기업의 기술과 공공기관의 지원이 결합돼 국내 수소산업의 기반을 실증한 첫 사

례가 됐다.

청정수소는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약 200대 분량의 충전이 가능하다. 버스 기준으로는 30kg 충전 시 약 33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된 수소는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수소교통, 에너지 활용, 실증연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공급처 확대도 계획 중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선진 답사로 새만금크루즈 활성화 모색

도의회 관광활성화 연구단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가 24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단체 위원들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임국장,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출국장, 크루즈 접안부두 등을 견학했다. 인천광역시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인천형 테마크루즈 운영, 기항지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최근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발맞



김이재 도의원

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에 대해 김이재 대표의원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사례

를 면밀히 분석, 새만금신항 개항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에는 김이재 대표의원과 김경기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김동구, 김대중, 김만기, 나인권, 서난이, 이병도, 임종명, 이병철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영호남 국회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전북에”

25일 영호남 의원·전북도·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공동기자회견

여야 전북도당위원장장과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유치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함께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예정

이다. 또 남원이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1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호부지가 대부분 유류 국유지로 예산 부담이 적고 신속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전북 남원에 들어설 경우 ▲국가 균형발전 기여 ▲영호남 상생협력 강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영호남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남원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추석 대비 재난취약시설 민관 합동점검

전통시장·터미널·레저 36곳 점검
경미한 문제는 즉시 현장 조치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도내 전통시장 10개소, 터미널 8개소, 레저시설(출렁다리, 케이ابل, 집라인, 스카이워크) 1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도·시군 담당자와 시설·전기·가스·토목·기계 분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전북중소벤처

기업정보도 함께 참여하여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여부 ▲누전 차단기 및 개폐기 등 전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 배관의 부식 및 누출 여부 ▲주케이블 손상·부식·정착부 체결 상태 확인 ▲구동화차·감속기·전동기 등 회전상태 정상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중대한 문제점은 관리 주체에 통보해 보수보강 등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문승우 의장, 국회의장 만나 전북 지원·지방의회 협력 건의

새만금 개발·SOC에타 면제 요청
전북특별법 재정지원 의무화 추진
국회·지방의회 협력 법제화 제안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 등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다”며,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우 의장은 그간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공통된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다”며, “중책을 맡은 만큼



문승우 도의장은 24일 국회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지원, 전북특별법 특례 의무화,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공통된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다”며,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도의회 의장의 직무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에도 힘써 지역의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임직원 사칭 금융사기범죄 예방 강화

계약업체 대상 조직적 접근 증가
나라장터 활용한 사칭 피해 확산
“의심 연락 즉시 사실 확인” 당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최근 타 기관에서 임직원을 사칭, 계약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 예방 활동

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칭범들은 최근 나라장터 입찰공고와 계약현황을 이용해 낯설 업체를 확인한 뒤, 발주처 담당자인 것처럼 전화로 사업 공고 내용을 언급하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약상대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거

나, 설명회 참석 및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선량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사례 발생 차단을 위해 계약업체에 우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SNS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계약과

무관한 내용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연락하거나 금융기관과 연계해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안내, 개인정보 요구 등을 일체 하지 않는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전북개발공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보행할때



꼭



지켜야할 교통안전 수칙



횡단보도 신호준수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무단횡단 금지



작은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전주시의회, 시민 보행 안전 강화 조례안 가결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 보행 안전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병하 의원(우아1·2, 호성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건설사업장보행안전도우미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사로 인한 보



이병하 의원

행자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임무 △자격기준 △금지행위 및 복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공사장 인근 보행자



김세혁 의원

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모범운전자연합회지원조례안은

교통경찰을 보조하며 수신호, 경광봉 등을 통해 교통정리를 지원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요 시행 사업 △사업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범운전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세계의료계 ‘주목’

내분비·소아과 분야 ‘2026년 뉴스워크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워크지 발표 ‘2026 세계 최고 전문병원’ 순위 에 전북대학교병원 두 개 분야가 오르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뉴스워크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와 함께 ‘2026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6)’ 평가를 실시해 발표했다.

평가는 의료 전문가 추천, 병원

질 지표, 환자 경험, 환자보고결과(PROMs) 등 국제적 기준을 종합해 순위를 산정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대병원은 지방거점 국립병원으로서 세계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유로 는 내분비 분야 71위, 소아과 분야 176위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2025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개최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참석

브라질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에서 각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 온 단체들이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2025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윤동욱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 등 내외빈과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동욱 부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관우 의장의 환영사, 윤순호 국장과 박규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축사, 시상식, 아미레스릴 갈라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국제 공모에 응모한 42개국 90개 팀 중 심사를 거쳐 △브라질의 이예페(Iepe) △이스라엘의 케셋 엔지오(Keshet NGO) △인도네시아의 와양 사삭 인형극 학교



각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 온 단체들이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2025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Wayang Sasak Puppetry School)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브라질의 ‘이예페’(Iepe)는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와 정치, 지속가능성 역량 지원, 토지 관리, 환경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 이스라엘의 ‘케셋 엔지오’(Keshet

NGO)는 전통 농업기술 및 약용식물 재배지식 기록·보존,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개발 등 지역 사회, 문화·예술, 환경 보존, 베투인 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인 인도네시아의 ‘와양 사삭 인형극 학교’(Wayang Sasak Puppetry

School)는 비정규 인형극 교육 및 사삭 인형극 공연 활동 전개와 상호작용 퍼포먼스 도입으로 실시간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통 인형극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교육·환경·성평등·지역 발전을 아우르는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리나 다 실바 칸(Marina de Silva Kahn) 브라질 이예페 대표는 “전주시가 보여준 무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가치가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전주시가 전통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무형유산 종사자와 앞으로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동욱 전주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후백제와 조선을 잇는 천년고도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51개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제무형유산대상이 전주와 세계의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소통·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활동 추진

산업단지·상수원 수계 환경오염 행위 예방 집중 감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등 전북 내 주요 환경기초시설 및 주변 하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 연휴 전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및 반북 위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환경법령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배포하여 사업장 자율점검

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 점검 및 주변 하천 등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2단계로 연휴기간인 10월 3일부터 10

월 9일까지는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주변 하천 등 취약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3단계로 연휴 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연휴 기간 동안 오염행위 등이 우려되거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장기간 시설 가동을 중단한 소규모·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중에 폐기물 불법소각, 수질오염 사고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24시간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국문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특별노선’ 운행

개막식 25일·시상식 27일 오후 3시부터 경기종료 후까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관람객 편의 위한 시내버스특별노선이 운행된다.

전주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관람객 교통 편의 위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내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노선은 대규모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개막식 25일과 시상식 27일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25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총 9대(마을버스포함)의 버스가 운행하며, 오는 27일 열리는 시상식에는 총 8대의 특별노선이 오후 3시부터 10분~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교통카드 1650원, 현금 1700원이 부과된다.

노선은 평화동 종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 △시의·고속버스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등 주요 거점을 거쳐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된다.

시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온누리교통봉사대 및 현장 안내요원을 배치해 관람객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원활한 진행 △시민과 관람객 교통편의 보장 △전주가 드론축구 중추도시이자 국제스포츠 개최도시로서 브랜드가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대중교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실현과 행사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이자 국제 드론 스포츠 대회인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특별노선 	
노선번호	2025
운영일시	2025.09.25(목) 15:00부터~
주요노선	평화동종점 ↔ 전주월드컵경기장
평화동종점~한옥마을~시의고속버스터미널~종합경기장~전북대학교~월드컵경기장	
평화동출발	15:00 / 15:10 / 15:20 / 15:30 / 15:40 / 15:50 / 16:00
월드컵경기장 출발 행사 종료 후 20:30부터 시외고속간이터미널에서 먼저 시 순차적으로 출발	
※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 적용(교통카드 1,650원 / 현금 1,700원)	
문의처 : 전주시 버스정책과(281-6108)	

지 4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펼쳐지는 드론축구월드컵에는 23개국 드론축구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막식과 시상식 당일에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특별노선’을 적극 이용해 달라”며 “행사 당일 경기장 주변 혼잡이 예상되므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군산근로자이음센터 ‘공장·상생 향한 근로자이음 공동선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과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지사장 강수영)은 24일 노사정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생’을 향한 근로자이음 공동선포식’을 군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동선포식에는 군산지청을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등 노사정 각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산근로자이음센터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함께 풀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 연결의 공간으로 발전을 기원하며 이곳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지역사회에 노동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노동·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지원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 서비스 연결 △근로자 간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소모임 공간 대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노무제공자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지원, 노동약자 권익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노동법 교육, 재무설계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산지역에 센터가 개소됨으로써 노조 미가입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및 고용서비스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조달청 ‘계약사업 집행실적’ 1조7295억 달성

전년 대비 100.2% ↑
연간 목표 76.4% 달성
공공조달 길잡이 결과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지난 19일 기준 조달계약사업 집행 실적은 1조7295억원으로 연간 목표(2조2685억원) 76.4%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지방조달청 집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0.2% 오른 것으로 이유는 그동안 ‘공공조달 길잡이’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집행실적은 지난 '22년 2조원 달성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남은 '25년 하반기 실적 경신 기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00.2% 집행실적 결과에는 김항수 청장이 이끈 ‘공공조달 길잡이’에 의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 청장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과 위한 기업인 성장을 위해 '25년 상반기 52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의 ‘공공조달 길잡이’에 따른 도내

‘종합쇼핑몰·혁신제품·벤처나라·디지털 서비스몰 등록’ 지원은 맞춤형 컨설팅 이후 기업 성장세로 이어졌다.

공공조달길잡이란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업을 발굴해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 벤처→혁신→MAS→우수→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공조달길잡이가 도입 배경으로는 △창업·벤처·혁신기업만의 특화 제품 등이 판로를 못찾아 사라지거나 스스로가 헤칠 수 없는 직면에 처해지는 사례 발생에 서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3월 본청과 전국 11개 지방청에 조달 경험의 풍부한 직원 34명을 ‘공공조달 길잡이’로 지정·배치했다.

현재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외 1명이 전담자로 지정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조달길잡이가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전북지방조달청은 2025.09.19. 기준 조달계약사업 집행 실적은 1조7295억원으로 연간 목표 76.4%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25년 9월 현재 전북지방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운영 성과로 방문 및 유선상담 총 52회 등을 이뤘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 △조달제도 방문 교육(1:1)과 맞춤형(1:1)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확대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 대상 찾아가는 조달제도 교육' 정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도내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하양진 시지부장, 농심천심 캠페인 ‘앞장’

아침밥먹기 중요성 강조
쌀 소비촉진 홍보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캠페인이 전북도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쌀 소비가 치솟고 있다.

하양진 전주시지부장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우수성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심천심(農心天心)’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하 시부장은 덕진구 소재한 전북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시민들을 상대로 아침밥먹기 중요성을 강조하며 쌀 소비촉진 홍보를 펼쳤다.

‘농심천심(農心天心)’ 의미는 농부의

마음(農心)이 하늘의 뜻(天心) 이다.

하 시지부장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주요 목적은 시대에 따른 삶 변화에 건강을 바라며 시대변화에 희석해 지는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식혜 등 공손히 나눠주며 “아침밥 꼭 챙겨 드세요. 건강이 되살아 납니다”라고 지역민들을 응원했다.

하 시지부장은 이어 도내 취업박람회장으로 이동해 박람회 장을 찾은 관람객, 기업인 등 누구나를 대상으로 금융편의를 알리며 지역 상생금융을 알렸다.

하양진 지부장은 “우리 쌀 소비와 든든한 하루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라며, 농업·농촌의 가치



를 재조명하는 농심천심 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

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네이버클라우드, 농업 분야 AI 에이전트 ‘첫선’

‘최신농업기술알리미’ 앱
영농정보 챗봇 등 구성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과 협력해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해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 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방대한 디지털 농업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

술력과 결합해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는 ‘최신농업기술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되며 △영농정보 챗봇 △맞춤형 교육 추천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백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형태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민원 상담 △시군센터 지도적 업무 지원 △농작업 안전 사고 예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연내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생의 수강 이력과 관심 사항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강좌를 추천하거나, 관심 영농정보를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력해 개발한



농업 특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는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의 시작점이다”며 “앞으로 기능을 확장해 농업 현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데이

터 기반 영농을 통한 농업인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성수품 16개 품목 식품안전 특별점검

채소·과일·축산물·임산물
수급상황·가격동향 살펴

전북농협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전북농협은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24일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은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복학) 산지유통센터(APC)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의 이번 특별점검 품목은 채

소(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과일(사과, 배, 단감), 축산물(소·돼지·닭·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으로 분류됐다.

특히 식품안전 점검 강화 위한 전북농협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간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관내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 대상으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전북농협은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출시

3년간 총 1,800만원
납입시 2,298만원 수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수,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기존 5년형 상품에서 3년형 상품을 추가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작년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사에서 36000여명이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상품은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되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우대 저축공제’ 가입은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되는 3년형 상품은 최

고 4.5%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년간 매월 50만원씩 저축 시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약 229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 효과는 개인납입금 대비 약 28%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은 똑같이 제공되고, 3년형 상품 출시에 따른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현재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4곳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우대 저축공제의 3년형 출시와 취급은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편리성이 높아져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지역 전기업계 발전을 위한 ‘제3차 전북 전기분야 유관기관 발전 협의회’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전북 전기분야 유관기관 발전협의회’ 개최

지역 전기업계 발전을 위한 ‘제3차 전북 전기분야 유관기관 발전 협의회’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정 에너지수소과 배주현 과장,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최동환 본부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이재수 회장, 한국전기기술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최병희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수 회장은 “찾은 교류의 필요성과 ESS 구축사업 등 새만큼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LX-카타르, 디지털트윈 플랫폼 확산 협력 논의

인프라 관리 디지털 전환 등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의 중동 확산을 위해 카타르와 머리를 맞댔다.

LX공사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카타르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지리정보센터(CGIS·대표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와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카타르 지방정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카타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의 디지털 전환 △3D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발굴 등의 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LX공사의 공간정보 융합 기술이 만나 중동 지역에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GIS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 대표는 “카타르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LX공사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카타르의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위해 LX공사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도시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중동 지역 디지털트윈 표준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4자 협약으로 본격 궤도

기재부·교육부·남원시 전북대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폐교된 남원 서남대 부지를 재생시켜 지역 상생의 마중물로 조성하는 남원글로벌컬캠퍼스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전북대, 남원시가 구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대 글로벌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9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공식 협약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운영되는 전북대 남원 글로벌컬캠퍼스가 개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3년 12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서 서남대 폐교 부지를 재생시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고, 이어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남대 부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의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어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및 교육부와 전북대, 남원시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이변에 부지교환을 위한 4자 협약이 성사됐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부지교환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남원시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교육부가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캠퍼스가 대학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혁신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북대는 지역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로 이



여지게 해 대학-지역 상생 및 지역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캠퍼스 조성과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칫 지역 공동화의 산물로 전락할 뻔 한 지역 폐교가 혁신을 통한 지역 상생의 마중물로 변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남원글로벌컬캠퍼스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절대 지킨다”

유해약물 예방 수업 개최 우수사례 나눔의 장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건수업 나눔을 통해 흡연·음주·마약 등 유해약물로부터 학생건강을 지킨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0일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2025 유해약물 예방 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되는 이 행사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과 성찰을 통해 보건수업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미래형 예방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페스티벌은 △흡연·음주·마약·카페인 예방 우수 수업을 나누는 ‘수업 마당’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대안을 탐구하는 ‘체험 마당’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 ‘다짐 마당’으로 운

영된다.

전북흡연예방교육연구회, 마약예방교육 교사연구회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전북지부, 학생금연지원센터, 전북금연지원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부스를 마련해 내실있는 학교 보건교육 운영에 힘을 보탠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수업 페스티벌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흡연·음주·마약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계약업무 부패 요인 ‘사전 차단’

계약분야 청렴추진제 워크숍 소통·협력 청렴 행정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계약분야 청렴추진제 워크숍’을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다짐했다.

교육지원청 및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계약분야 청렴추진체는 계약업무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교육지원청 재정팀 계약업무 담당자, 학교 행정실장 등 청렴 추진체 9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계약분야 반부패 추진체 구성원들은 ‘비리가 없더라도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서로 공

감하며, 청렴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렴 특강과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참여형 토의·토론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외부 체감도 저해 요인들을 공유하고, 청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 △학교 현장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그룹별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청렴계약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계약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미국 글로벌 교류·협력 토대 마련

퍼듀대·조지아공대와 공동학위·연구 협력 논의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최근 미국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 국제 협력 기반을 다지고, 특히 미래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오봉 총장과 강은호, 장원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등 전북대 대표단은 최근 밤미 일대에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와 조지아공과대학교(Georgia Tech), 세계적 항공우주기업 보잉사(Boeing),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를 방문해 글로벌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표단은 먼저 퍼듀대학교와 조지아공대를 찾아 첨단방산 및 Physical AI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퍼듀대 방문에서는 부총장 2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양 대학은 교수진·학생 교류, 국제 공동학위 과정 개설, 연구협력 확대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보잉사 방문에서는 전북대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보잉은 앞으로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



로그램 확대와 장학금 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호 인력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성민 기자

가을철

건강관리

체온유지

스카프, 얇은 겉옷 등으로 아침, 저녁 기온 변화에 대비 합니다.

충분한 수분섭취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기관지 건조를 막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요

개인 위생 관리

감기와 비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어요

규칙적 운동

걷기나 조깅등 20~30분의 가볍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요

정읍시, 유기·유실동물 입양가정 부담↓…펫보험 최대 15만원 지원

정읍시가 유기·유실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유기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1년간 펫보험료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 후 펫보험에 가입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정읍시 2청사 축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양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입양된 동물의 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험료 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으로 체계적인 진료 기록이 남아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7일 평생학습관 성과공유 동네문화 콘서트 개최

군산시평생학습관이 2025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동네문화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미룡2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산시평생학습관, 월명평생학습센터 등 수강생들이 갈고닦아 온 실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콘서트는 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먼저 통기타·하모니카·한국무용·민요·색소폰 등 5개 팀이 공연을 펼치며 화려한 막을 열 예정이다.

이어, 미술과 공예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는 △나만의 핸드메이드 도자기 △유화 △대체성 △캘리그래피등 정성스레 만든 작품들이 거리 곳곳을 채워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마지막으로 체험 공간에서는 가족공예·손뜨개·캘리그래피 등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착순 50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동네문화 콘서트는 사전 예약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행복포인트 적립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예약은 25일부터 군산시평생학습정보방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 군산시에 성금 1천만 원 기탁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조강철)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6일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 중 수해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강철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성금은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돼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04년 설립 이후 천연가스 공급을 비롯해 큰들 봉사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탄 기부,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및 방역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함라지구 재해 위험 줄인다

북개구간 철거 등
총사업비 490억 규모
홍수해생활권 정비

익산시가 함라지구의 재해 위험을 줄여 주민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익산시는 함라면 함열리 일원의 함라지구를 대상으로 '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소하천인 수동천과 교동천을 중심으로 축제·보축공사, 교량 재설치, 북개구간 철거 등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방댐 3개소 설치, 급경사지 옹벽 보강, 저류지 용량 확보 등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 규모로, 2026년에는 22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비율로 마련되며, 익산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함라면 함열리 일원의 함라지구를 대상으로 '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함라지구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토사 유출과 노후 제방 등으로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위험이 크게 줄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사업은 주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미래형 도시관리 본격화

‘도시통합센터’ 공식 개소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원

군산시가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 거점인 '도시통합센터'를 공식 개소하며 미래형 도시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개소식에는 김임준 군산시장과 주요 내외 귀빈,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도시통합센터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 생활편의, 방범, 안전 분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시는 도시통합센터 개소를 통해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도시의 안전 관리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효율적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은 교통 상황, 유해화학물질, 침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시의 안전 관리 강화 기능을 통해 군산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통합센터의 정보를 다양한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돼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빠

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도시통합센터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도시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앞으로 시민 안전 강화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도시통합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자랑스러운 유산’ 명예도로명 3곳 부여

전봉준길·정극인길
무성서원으로 결정

정읍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리고,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의미 있는 명예도로명을 새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2025년 제1회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전봉준길', '정극인길', '무성서원로' 등 3곳을 명예도로명으로 확정했다.

먼저 '전봉준길'은 이평면 장내리 전봉준 고택 일대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전봉준은 1894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탐관오리의 폐단을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려 했던 인물로, 근대 민주주의

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명예도로명은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정읍의 위상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극인길'은 칠보면 무성리의 정극인 묘역으로 가는 길에 부여됐다.

정극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 작품인 '상춘곡'을 지은 인물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도로명은 한국 문학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을 기리며, 정읍이 빼어난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인재를 길러낸 땅임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성서원로'는 칠보면 무성리 무성서원 인근 구간에 이름이 불

여졌다. 무성서원은 고려 말기에 건립된 후 조선 시대 성리학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 서원으로,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성서원로라는 명예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우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읍의 역사적 인물과 명소가 널리 알려져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명절 연휴 ‘튼튼 민생·든든 안전’ 준비 완료

다리로움 확대·의료공백 최소화 등 전방위 대응

익산시가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김영희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안전을 핵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튼튼한 경제 △따뜻한 나눔 △안전한 연휴 △든든한 행정이라는 네 가지 기조를 중

심으로 마련했다

익산시는 우선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회 상품권 '다리로움'을 확대한다.

다리로움의 구매 한도는 오는 10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추가 충전금도 13%로 확대됐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790억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10월분 '근로정년수당'도 명절 전 빠르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재난·교통·민생·보건 등 각 분야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했다. 시는 연휴 기간 운영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 없이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김영희 국장은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통합 30주년 ‘시민화합대축전’

10월 한 달간 공연·행사 풍성

익산시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한 달간 '2025 시민화합대축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문화·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대축전은 총 5개 분야, 3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화합과 참여의 장이 될 전망이다.

축전의 시작은 10월 3일 영등시 민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다. 시는 이날 통합 3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6명을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기념식 후에는 KBS 전국투어 콘서트가 열려 시민화합대축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시민화합대

축전 기간에는 지역소비 축진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지역화폐 '익산 다리로움'은 10월 한 달간 충전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도 13%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대축전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10월 2주간 시 직영 공영주차장 9곳이 무료로 개방되며, 국민생활관과 문화체육센터 등 주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은 휴관일에 맞춰 일요일마다 무료 개방된다. 보석박물관은 10월 3일 시민의 날 당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축전을 계기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센터 시설개선

안정적 운영·안전사고 예방

정읍시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정읍을 비롯해 고창, 부안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자원 21개 품목을 공동 처리하는 거점시설로, 2023년 개소 이후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재활용 물품과 근로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고 선별 근로자 38명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선별공간 400㎡ 신축 △운열집환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복지기관 동참

정읍시가 인구 10만 명 유지와 생활인구 50만 명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복지기관들이 힘을 보태며 확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장애인, 정읍천사마을이 참여해 인구감소 극복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독려에도 적극 협

력하기로 했다.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사랑 소꿉친(주민 전입) △정읍사랑 머무르기 △정읍사랑 함께살기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이학수 시장은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전 시민과 각 기관·단체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청 펜싱팀 양윤진·최지영, ‘태극마크’

익산시청 펜싱팀의 양윤진·최지영 선수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 도전에 나선다.



익산시는 시청 양윤진 선수와 여자 사브르 최지영 선수가 2025~2026 시즌 국제대회에 출전할 펜싱 국가대표로 발탁됐다고 24일 밝혔다.

펜싱 국가대표는 매년 네 차례 열리는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성적을 환산한 점수와 국제펜싱연맹(FIE) 개인 순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선발된다.

양윤진 선수는 2018년 익산시청 펜싱팀에 입단했으며, 군 복무 후 2021년 복귀해 꾸준히 기량을 쌓아왔다. 올해 종목별 오픈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기량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지영 선수는 2020년 입단 이후 안정적인 기량을 유지하며, 2023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은

메달을 따내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두 선수 모두 그동안 임시 발탁 경험은 있었으나 정식 국가대표 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내의 주요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양윤진 선수와 최지영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성과는 익산 시민 모두의 자랑"이라며 "두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26~28일까지 개최
14개 종목 선수감독 등
217명 선수단 구성

전북 고창군이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24일 오후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결단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선수단 및 지도자, 유관기관 임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경기하며, 안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달라”며 “이번 장애인체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6~28일까지 사흘간 고



전북 고창군이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창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도내 선수단 간 열띤 경쟁과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14개 종목에 선수, 감독, 코치 등 217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대회에 출전한다. 고창군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과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규사업 핵심 전략 논의

정성주 시장 “내년 민선 8기
결실의 해 사업 점검” 당부

김제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정성주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2025년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사업 사전검토를 통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업무 계획으로 △국정재도 연계 김제형 미래 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인구활력 프로젝트 2.0 체류-관계형 인구 늘리기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관리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공공배달업 도입 운영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 △김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재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신규 국가예산·시책·현안 등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고도화 등 이재명 정부 3~4년차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고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장·보완을 거쳐 주요 핵심사업들

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6년은 민선 8기 결실의 해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식품·자동차산업 고용플랫폼 간담회

기업 26개소 등 모여
일자리 연계 현안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식품·자동차산업의 고용창출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고용플랫폼 2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식품·자동차 관련 기업 26개소와 일자리 유관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김제분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40여명이 참석해 관련 산업의 고용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고용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소통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산업 전반에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며 맞춤형 인력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였다.

주요내용은 △2025년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 운영 현황 △1차 고용플랫폼 간담회 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내 식품·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동향 등 다양한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자리를 통해 관련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의 인재상을 발굴·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그동안 고용거버넌스의 유기적

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지원협의체, 지평선일자리창출단 등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4월부터 우리시 주력산업인 식품과 자동차 2개 분야 고용플랫폼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식품·자동차산업 관련기업들과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용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추석 맞이 체험 ‘풍성’

10월 초까지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등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10월 초까지 추석 명절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에는 고창에 거주하는 초보 주부 15명을 대상으로 전통 보자기 매듭 공예를 배우고 작품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통문화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 주민 간 따뜻한 소통을 돕는 문화살

롱 ‘함께하는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러 10월 3~5일(3일간)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또 윷놀이, 제기차기, 양궁활쏘기, 버나오래들리기 등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창을 찾은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선 지난 14일에 흥겨운 전통 농악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우리 전통 음악의 흥겨

움과 멋을 선사했다.

전날(13일)에는 ‘테라리움 비누 만들기’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천연비누를 만들며제로웨이스트 실천과 친환경 소재 사용의 중요성을 느꼈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기 바란다”며 “특히 조부모와 손녀가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지방살리기 적극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 자매결연 체결

부안군은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자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공공기관·기업을 연계하는 법부처 정책사업으로 단순한 행정적 교류를 넘어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특산품 홍보 등 지역 활력 증진과 현장 중심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안상설시장 장보기 등 지방살리기 상생 협력의 뜻을 함께 모아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력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 열어

인식 개선·구매 활성화

고창군이 지난 23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추석맞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고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 활성화에 나섰다.

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샘터자리’, 익산시 ‘해피드림’, 완주군 ‘행복한 집’, 진안군 ‘굿데

이’ 등 도내 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했다. 각 시설은 홍삼, 육포, 황태, 곡물, 빵, 견과류 등 평소 인기가 많은 품목들을 추석 선물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판매행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마련을 마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한마음대회 개최

존중·배려 평등 공동체 다짐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가 24일 부안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각 읍면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군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양순)가 주관한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에 대한 표창 수여, 슬로건 퍼포먼스, 축하공연, 화합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서로를 존중하는 힘! 양성평

등’을 주제로 신장철 교수의 특강이 열려 양성평등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박양순 회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스며 있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군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양성평등은 제도나 생략 속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부안군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시민 문화 향유층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24일과 오는 10월 22일에 운영하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의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국가유산 김제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전후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및 벽천미술관 방문객의 증가로 당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시간) 운영하던 일정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벽골제농경문화

박물관은 민화 부채·강강술래·팽이·비석치기 만들기 놀이와 벽천미술관의 패브릭 민화 파우치·지평선축제 캐릭터 찌리퐁이 에코백 그리기, 민화 접반침·거울 등 10여종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는 30일부터 김제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 추진과 함께 무료 양산 대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의 김제 시민 문화 향유층 확보와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콘텐츠를 늘려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공립작은도서관 취약계층 독서·문화 격차 해소

김제시(시장 정성주)공립작은도서관은 김제시 드림스타트와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의 독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6회 동안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북쟁’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공립작은도서관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을 발굴·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문화와 복지가 결합된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드림스타트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은 주로 미취학 아동 위주로 구성됐으며, 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그림책 읽기, 재미있는 책놀이,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책과 친해지고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북쟁’은 책 읽기와 문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텃밭쌈밥·효사랑 보호센터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고창군 고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진용, 이하 지사협)는 지난 23일 오후 ‘착한가게’ 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현판이 전달된 곳은 ‘텃밭쌈밥식당(대표 김학배)’과 ‘고창효사랑주간보호센터(센터장 조상봉)’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원씩 정기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현판 전달식에는 고창읍장, 부읍장, 고창읍지사협 위원 등이 참석해 착한가게 가입업소의 따뜻한 나눔 실천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업소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과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고창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국가유산 야행’ 8夜 주제 총 28개 프로그램 운영 ‘성황’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제4회 2025 부안 국가유산 야행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안 야행을 여는 개막 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가 국가유산 사적 ‘제5로 직봉-부안점방산 봉수’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국가유산해설이 진행됐고, 부안초등학교 관현악단 윈드오케스트라의 개막축하 공연이 어우러져 야행의 활기가 넘쳤다.

‘부안 국가유산 야행’은 8야(夜)를 주제로 총 2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 야행은 국가유산 당산을 소재로 한 문화 행사로 ‘안녕, 부안의 밤 그리고 바다’를 주제로 부안 당산제와 부안농악을 비롯한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과 줄타기 등 부안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가무형유산 공연을 펼치면서 많은 방문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 부안 야행은 부안의 전통문화를 모든 연령이 체험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한 부안 국가유산 야행에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안의 뛰어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 4개 문화도시 박람회 완주서 개최

완주·익산·고창·전주 연대 협력 완주와일드푸드축제장서 열려 4개 도시 홍보관 운영 및 부대행사

전북권 4개 문화도시(완주, 익산, 고창, 전주)가 연대·협력하여 '2025 전북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완주의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와 함께 해 인지도를 높이고 행사를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박람회 주제 슬로건은 '문화도시로 안전,익고 있는 전북'으로 설정했다.

여기서'완전,익고.'는 4개 도시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표현, 이를 통해 '전

북의 문화가 깊고 넓게 성숙해진다'는 염원을 담았다.

주요 행사로는 4개 문화도시 홍보관 운영, 포럼,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부대행사가 준비 중이다.

내용으로는 먼저 4개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각 도시별 문화도시관 및 체험, 공연이 운영된다. 문화도시관에서는 각 도시의 센터별 정책사업, 전시물 등을 볼 수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등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4개 문화도시의 개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완주의 원예 체험, 익산의 금속 보석 공예, 전주의 액막이 명대 만들기, 고창의 바다향 할링솔트/소금꽃 아로마스와 등 각 도

시의 독창적인 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각 도시의 특성을 대표하는 공연 또한 무대에서 펼쳐진다.

박람회 둘째 날인 27일에는 박람회장 내 무대에서 공식 기념식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각 도시의 문화재단 및 문화도시지원센터, 각 지자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문화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짐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북생활문화동호회 공연, 댄스댄스 버스킹, 디제잉 파티 등 다양한 공연과 '도전! 나도 가수다'등 현장 참여 이벤트는 물론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도 계획 중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서 전북포럼 성황…농생명·관광 융합 전략 논의

'생명경제·지역 특화 발전' 주제 국내외 전문가 시민 700여명 참석

남원시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제2회 전북포럼(2025 Jeonbuk State Forum)'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국내·외 기관 대표와 전문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주제는 '생명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특화 발전'으로 남원을 중심으로 농생명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을 포함한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개막식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전문가의 특별·기조연설, 좌담, 3개의 세션이 진행됐으며 먼저 인도의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우비후 국제관광연구학회 창립의장, 윤일상 작곡가 등이 연사로 나서 각각 생명경제의 국제적 흐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의 가치, K-POP과 전통음악 융합을 통한 문화산업 글로벌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좌담에서는 이해원 전주대학교 산학

부충장을 좌장으로 노홍석 행정부지사, 이성호 남원부시장 등이 생명경제 선도를 위한 전북도와 남원시의 특화산업 발전 전략과 해결 방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농생명산업 지역특화 발전전략 △K-문화·관광산업 국제화 △국내 포럼 연계 세션 등 다채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남원시가 제안한 eco스마트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관광 육성, 문화산업진흥 지구 추진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현대차·산단투어 완주 청년 취업 자신감 '쑥'

현장견학투어 프로그램 호응 청년구직자 40명 2차 참여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현대자동차 현장견학 및 완주산단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완주산단 입주기업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4일에는 완주와 전북지역 청년구직자 40명이 참여해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참여자들은 현대자동차의 주요 생산품목인 버스과 트럭의 제조 공정을 단계별로 둘러보며 자

동차 생산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어 완주산단 일대 투어를 통해 다양한 입주기업 현황을 확인하고, 채용 정보를 접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혔다.

지난 17일에는 수소에너지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의 첫 참여에 이어 진행됐으며, 오는 29일 우석대학교 학생 40명의 현장 견학까지 총 3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완주 삼봉지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구직자 최모 씨는 "내년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실제 공장을 둘러보며 직무를 직접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수 강사 7명 장학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24일 옥천인재수 강사 7명(재)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옥천인재수의 강사 6명과 김영철 전 교무실장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지역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더 큰 꿈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장학금을 기탁한 강사는 고3 영어 담당 유상호 강사를 비롯해 장성준, 권준욱, 서정만, 오성만, 홍원기 강사와 퇴직한 김영철 전 교무실장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 인재 양성으로 보답하자"는 뜻을 함께 실천했다.

유상호 강사는 "순창군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은 늘 뜻깊고 보람 있었다"면서, "이번 기부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지역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장수군 농협 '농심친심' 고향사랑 상호기부

남원시와 장수군 농협 임직원들이 24일 장수군청과 남원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상호 기탁식'을 열고 총1,832만원을 교차 기부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식 행사에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를 비롯해, 춘향골·지리산·운봉농협 조합장, 장수·장계농협 조합장, 농협 남원시지부장(오영석)과 장수군지부장(김성수)이 함께했다.

기부금 전달액은 남원시 922만원, 장수군 910만원으로 남원에서는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450만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260만원, 운봉농협(조합장 오영담)212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장수에서는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460만원,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우)450만원을 남원시에 기탁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이번 기탁은 남원과 장수가 함께 나아가는 상징적인 행보"라며 "앞으로 두 지역이 더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도 "고향사랑 교차기부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농협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미화장품, 태국서 남원 천연원료 K-뷰티 첫선

방콕 비타푸드 아시아 참가 지리산 찐겨·찐레꽃 세럼 공개

한미화장품(대표 정명수)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Vitafoods Asia) 2025'에 참가해 남원 지리산 천연물을 활용한 자체 생산 K-뷰티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80개국 544개 기업이 참가하고, 1만 2천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 및 뷰티 박람회로 주목받았다.

한미화장품은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 브랜드 '한국미인 오브한(OFHAN)'의 첫 제품인 △오브한 브라운라이스 브라이트닝 세럼 △오브한 아르테미시아수딩 세럼 2종을 선보였다. 특히, 지리산 자락 남원에서 유래한 찐겨·저단산꽃·찐레꽃·복사나무꽃·산구절초 등 천연 소재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한미화장품은 58년 업력의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한미양행이 화장품 사



한미화장품은 지난 17일~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해 남원 지리산 천연물 활용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사진=남원시>

업 확장을 위해 남원시에 설립한 100% 자회사이다. 지난 2월 남원월단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남원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며, 시와 협력관계를 맺고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리산 청정 자연의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한미화장품은 베트남 바이어와의 브랜드 협약을 통해 하노이를 비롯

한 베트남 전국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13개 점에 화장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들은 '2025년 남원시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한미화장품은 올해부터는 남원 자사 공장서 전 제품을 생산해 공급을 확대하고, 시와 협력해 지역 바이오소재 기반 사업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렴토크' 성료…소통 기반 청렴문화 확산

군수 주재 청렴토크 3회차 마무리 만족도 90% 이상, 후속 정책 추진

순창군은 지난 23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토크'를 진행하며,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직급별 소통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3회차는 지난 7월 30일 8·9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1회차, 8월 22일 7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2회차에 이어 열렸으며, 직급별 공직자들이 군수와 직접 대화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청렴토크에서는 공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이 솔직하게 공유됐다. 1회차에서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상사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언행이나 회식문화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2회차에서는 7급 직원들이 생일 특별휴가 도입, 민원업무 교대근무 등 현실



순창군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토크'를 성료했다. <사진=순창군>

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했고, 일부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6급 직원들이 참여해 부서 운영 과정에서 겪는 청렴 실천의 어려움과 구체적 대안을 나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선

1·2회차 참가자들은 행사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을 90% 이상 응답했으며, 군수의 진솔한 소통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또한 행사 후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90% 이상으로 나타나, 직급별 소통 방식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내년도 외국인 인력도입 설명회 열려

계절근로자-E-9 절차 안내 설문·건의 접수, 정책 반영 예정

남원시가 24일 남원농협고죽지점 대회의실에서 농가 286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번기의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해결 할 계절근로자(E-8) 도입부터 연중 인력 필요한 농가를 위해 고용허가제 E-9 신청 절차까지를 소개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남원시의 농촌인력 공급계획은 권역별 농협에 운영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내·외국

인 중개와 함께 인구소멸위기 농촌의 슬기로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당일 교육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건의서 접수를 진행해 2026년도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 조사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는 설명회 이후 교육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운곡지구에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

전북 시군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아

완주군이 용진을 운곡지구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1차 아파트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설치하고, 지난 23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공동주택 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에서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따숨이' 앞으로 5년간 9호점 운영을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수탁기관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이용아동 및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축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따숨놀이터는 99.2㎡ 규모에 정원은 25명으로, 1차 아파트 뿐만 아니라 2·3차 거주민도 센터 이용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아동을 모집 중이다.

현재 완주군은 비봉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이번 9호점까지 개소하면서 도내 시군 중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터미널 안전점검

완주군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민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용객이 밀집하는 전통시장, 터미널에 대해 화재, 시설물 전기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는 완주군 소관 실과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 소방전문업체, 건축사 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군은 지난 17일에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해 대둔산 케이블카, 구름다리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중환 재난안전과장은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시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만큼 소방, 전기부문에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서도 화재 안전에 더욱 주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소외 없는 명절 위해
경로당 없는 마을에 물품 전달

완주군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2025 나눔으로 풍요로운 추석' 행사를 열고 명절 맞춤 물품을 전달했다.

군은 지난 23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2025 나눔으로 풍요로운 추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당 부재로 명절에 모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49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과, 식혜, 송편 세트, 김 세트 등 추석 맞춤 물품을 준비해 전달했다.

특히, 전달 물품은 자활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니어클럽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구매해 나눔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물품은 각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1,300여 가구에 직접 배부될 예정이다.

현재 완주군은 대부분 마을에 경로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 부족 등으로 49개 마을은 경로당이 없는 상황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강다현 학생,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래거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3학년 강다현 학생이 지난 22일 열린 제60회 기능경기대회 요리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다현 학생은 총 35명의 참가자가 겨룬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강다현 학생은 성인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발휘하며,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강다현 학생은 이번 금메달 수상으로 국제기능경기대회 올림픽아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됐다. 강다현 학생은 "평소 요리를 좋아하고 열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원에농협 김용현 조합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남원 지역 최초
농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남원원에농협 김용현 조합장이 지난 23일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민간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용현 조합장은 2020년 11월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

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남원 지역 최초로 농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고, 학교급식센터 및 푸드 가공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남원시 이너뷰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다각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자재 자재센터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안전 지원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 품목농협 평가에서도 꾸준히 우수한 성과

로 이어져,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대상',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 '농협손해보험 TOP-CEO/수상' 등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다.

김용현 조합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남원원에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기자



보람농원 이장은 대표·김병길 이장,
장수군에 사과즙 50박스 기탁

장수군 장수읍 대리마을의 이장은 보람농원 대표와 중동마을 김병길 이장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6일 두 사람은 직접 재배·가공한 사과즙 50박스를 장수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며 "풍성한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기탁된 사과즙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은 대표와 김병길 이장은 평소에도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에 앞장서며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

이번 기탁 역시 그동안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오수면지사협 박세근 위원장, 전북도지사 표창 수상

20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

오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세근 위원장이 지난 18일 제11회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2025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박세근 위원장은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창단한 해부터 현재까지 오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민관협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관내 식사 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등에게 매주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관내 식당과 협약을 맺어 '반찬나눔 사랑나눔 배달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모금된 기부 재원을 통하여 동절기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사업, 사랑 땀땀 나눔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꿈꾸는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및 겨울철 난방유 지원 사업 등도 진행했다.

올해에도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고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에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이런

왕성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 등 임실군에 나눔 이어져

임실군에 추석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사)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가 한우 91kg(3,450천원 상당)을, (사)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가 한돈 260kg(3,600천원 상당)을 임실군에 전달했다.

한우협회 이창우 지부장은 "추석을 맞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부를 결정했고,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다하겠다"라

고 전했다. 한돈협회 김성두 지부장은 "작은 나눔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길 바라고,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성진여객(회장 김진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기부 물품으로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시에 백미 260포 기탁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공장장 박진규)은 24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260포(약 1천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이번 기탁은 HD현대건설기계 부문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로 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진행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에 전달되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산공장 박진규 수석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따뜻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1% 나눔 재단을 통해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유)세술건설, 저소득층 청소년에
식품 선물 꾸러미 전달

익산시는 24일 (유)세술건설(대표 임광수)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유)세술건설은 ㈜하림식품 선물 꾸러미와 조미김 꾸러미 18상자를 기부했다. 기탁품은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익산시 특수시책사업이다.

임광수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대표님 덕분에 청소년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며 "소중한 선물을 장학생 가정에 정성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가을철 산악 사고 안전수칙

등산 전 준비운동 철저!

야간 산행 자제하기

지정된 길로만 걷기

음주 절대 금지!

〈一事一言〉



경찰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제대로 운영하자(2)

고상만
인권운동가

일부 경찰은 변호인이나 고소 대리인과 의견이 다르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대화를 한 것인지, 조롱을 당한 것인지, 싸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수사는 제 마음이잖아요’ ‘수사권은 저에게 있어요’ 등등. ‘당연히 수사관님 권한이십니다만 이런 길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배수진 변호사만이 아니다. 최근에 만난 공익제보자 이상돈 씨 역시 ‘잘못된’ 경찰 수사에 대한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배치된 30대 초반의 ‘전문연구요원’과 기업주 등을 내부 고발했다. 의무복무 대신 기업에서 3년간 연구 업무를 하는 직위였다. 하지만 그들은 제도를 악용했다. 실제 근무는 고사하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전문연구요원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주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하는 한편 경찰서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보내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각하’ 처분. 피고발인이 근무 안 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각하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다. 경찰은 고발인 이 씨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공익제보자가 이 씨가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고발인은 관련 증거가 있는 병무청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것을 고발인 조사 당시 경찰에게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병무청에 이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 격인 또 다른 ‘관련 협회’에도 참고인 조사는 고사하고 전화 한 번 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발한 사람만 바보가 되었다. 이런 식의 경찰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나.

이 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 세 명 역시 잘못된 경찰 수사의 피해자다. 윤석열 이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2023년 9월 방심위에 제기되었다. 방심위는 이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MBC 등 방송사에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한다. 하지만 이후 방심위 직원 3명이 내부 고발에 나서으로써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었다. 민원인 40여 명이 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었으며 이들이 제기한 민원 100여 건이 오타까지 똑같은 이른바 ‘복사해서 붙이기’ 민원이었다는 ‘공익신고’였다. 내부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한편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2024년 7월 25일, 경찰

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는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민원 내용’이 유사하여 의심은 되지만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류희림을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류희림 대심방심위 내부 제보자 세 명을 민원인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별 줄 사람에게 눈 감고 상 줄 사람에겐 벌을 준 것이다.

지금의 경찰을 이대로 두고 수사권을 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공정한 수사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거약’ 검찰로 인해 경찰의 문제가 방지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 뒤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찰이 개혁될 리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방법의 하나로 경찰 ‘청문감사인권관 제도’의 전면적 외부 개방을 주문한다.

1999년 6월, 김대중 정부 당시 각 경찰서마다 설치한 ‘청문감사관’(현 ‘청문감사인권관’, 이하 ‘인권관’) 제도는 획기적인 경찰 개혁 조치 중 하나였다.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경찰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기구였다. 문제는 인권관을 맡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다. 현직

경찰 신분의 과장급 간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경찰 내부자끼리 좋게 좋게 해결한다’는 비판과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본래의 취지에서 변질되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권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한데 왜 그럴까? 혹 국민이 너무 많은 불만을 제기할까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는 경찰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 중심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대동맥이라면 각 경찰서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문감사인권관’은 싹싹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 신분이 아닌 사람이 인권관을 담당해야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겠나. 이를 통해 인권관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럴 때 경찰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검찰개혁 잘했다는 소리가 커지지 않겠나.(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 인사 난맥, 구조적 개혁 없인 실패 반복

모든 조직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목표했던 성과를 내고자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지난 3년은 이 단순한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도정 운영 전반이 난맥상을 보였다.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잃어지고 출발했지만, 인사 시스템 부재와 잇따른 잡음은 도정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 전북 발전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최근 서울 전북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전직 도의원이 임명됐다가 낙마하는 촌극은 그 단적인 사례다.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인물을 공공기관장에 앉혔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 검증이 얼마나 허술한지 말해 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초대 정무수석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커 사퇴했고, 기업 유치를 위해 개방형 공모로 영입된 고위 간부는 갑질에다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낙마했다. 도대변인실은 전직 대변인들이 잇따른 갑질 문제로 중도 하차했고 일부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외려 영전을 하는 기묘한 인사로 안팎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청 주요 간부의 갑질 행태가 요즘 도청 내에 파다하고 과거 익산부시장 시절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여 말썽이 됐던 공직자가 도청 주요 보직으로 전보된 사례도 있다. 1년 반 전 각종 논란이 연이어 터졌을 때 비서실장을 교체하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해당 인물을 서울중앙협력본부장으로 보낸 것은 책임 회피에 다름아니다. 시민단체와 도의회는 이미 수차례 인사 난맥상과 공무원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정은 이를 외면하거나 땀질식 처방으로 대처해 왔다.

공직 사회의 근본은 공정성과 도덕성에 기반한 인사다. 공공기관은 특정 인맥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봉사의 장이다. 그런데도 측근 챙기기식 정실 인사와 허술한 검증은 전북도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인사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도정의 동력과 신뢰를 약화시키고, 도민 사회 전반에 ‘전북도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올림픽 유치 등 산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도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인사 구조라면 유능한 인재는 떠나고, 무능과 비리가 판치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다.

전북도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단순히 한두 명을 경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는 경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전북도의 인사 실패가 도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뼈를 깎는 쇠신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도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하며, 인사 시스템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북 발전의 동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화재열전



노성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교육기관, 학교
-지정일 - 1990년 6월 3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22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도(전북) 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8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심 순 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고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어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낯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였습니다

시인 약력 : 1960년 강원도 평창 출생.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출행했다.

31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리움에 사무쳐 이 시를 쓰게 되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구, 노블레스웨딩홀 5층

하루의 시작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루의 시작 전북타임스와 함께 시작하다



민선 8기 4년 차 남원 최경식 남원시장

6대 분야, 41개 공약 중 23개 완료, 18개 정상 추진 공약이행률 82% 달성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남원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약속은 곧 시정의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한 6대 분야 41개 공약 사업을 수립·추진하며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남원시는 현재까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전북 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남원형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연중 스포츠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 23개 사업을 완료하고 1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 이행률 82%를 달성하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통해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민과의 약속, 곧 시정의 원칙, 지역 발전의 토대'
대표적으로 남원시가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

는 공약이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8만 시민과 30만 향우들의 오랜 염원이자 시정의 제1과제인 폐교 서남대 문제를 2023년 교육부 글로벌대 대학 선정으로 해결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심 재생의 모범 모델로 만들고 있다.

이로써 오는 2027년까지 총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 남원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되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벌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세 학과가 개설, 2026년부터는 교육과정도 본격 운영된다.

연간 25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해 1학년엔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기초 교양을 이수하고, 2학년부턴 전공 수업에 들어가며 27년 3월부터는 남원 글로벌 캠퍼스에서 본격적인 학사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 공약 사업을 남원에 유치한 국가사업인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사업비 490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경찰청 공모에서 남원

운봉 부지가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시는 166만㎡ 규모의 국유지 등 남원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영호남 도민, 경찰직장협의회 등과 결집하는 등 최종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진척 등 국립기관 유치로 지역 기반 닦고 드론산업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 달빛어린이병원·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주여건 쇄신

스터 조성사업'은 남원을 드론레저 스포츠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남원시 핵심 공약사업으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과 함께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에 선정,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서비스와 드론배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역대 최대규모 국·도비 확보

이러한 가운데 남원시가 정부와 전라

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에 역대 최대규모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민선 8기 남원시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동시에 공약 이행에도 단초가 되고 있다.

실제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최 시장

이 재정자립도 8%대인 남원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사활을 건 것은 대규모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이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난 3년간 부처 문턱이 닳도록 광복행보를 펼치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인 예산행보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30 전북대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604억원) △요천 통합하천(489억원) △주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396억원) △전북반환주택(320억원) △지역활력타운(220억원) △농촌협약(264억원) △군촌산업 거점단지(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40억원) 등 총 265건 공모사업에 6,603억원의 예산

을 확보,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국비 예산은 역대 최대로 확보하면서 지난 2023년 170건 1,780억원에서 2024년 184건, 1,446억원, 25년 163건, 1,654억원 등 총 517건 4,880억원을 확보, 남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한층욱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남원이 블루존 프로젝트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교통산 자락에 고품자 치유마을도 조성하고 있다.

이로써 실버타운, 건강지원센터, 치유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마련, 웰에이징-웰케어-웰다잉으로 이어지는 전생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남원은 이제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지정된 데 이어 KTX 전라선과 달빛철도의 유일한 환승역인 KTX 남원역 주변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모사업'에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이제 남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교통·산업·관광이 융합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나 대규모 일자리까지 창출될 전망이다.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대폭 개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그 뿐인가.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출산과 보육, 교육과 청년 주거, 의료와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 주기 맞춤형 도시로도 도약하는 등 남원시의 정주여건은 날로 더 좋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한 달빛어린이병원·심야약국 운영 등의 맞춤형 정책 실현을 통해 아동·산모 등 필수의료 안전망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청년 만원주택·반환주택 조성과 빈집 정비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까지 돕고 있다. 이밖에 해외영어캠프, SW·AI 챌린지, 인재학당 건립 등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남원이 블루존 프로젝트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교통산 자락에 고품자 치유마을도 조성하고 있다.

이로써 실버타운, 건강지원센터, 치유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마련, 웰에이징-웰케어-웰다잉으로 이어지는 전생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남원은 이제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지정된 데 이어 KTX 전라선과 달빛철도의 유일한 환승역인 KTX 남원역 주변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모사업'에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이제 남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교통·산업·관광이 융합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나 대규모 일자리까지 창출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 8기의 모든 성과가 시민들의 염원과 열망과 공직자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만큼 민선 8기 4년 차도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만들기를 가시화 하겠다"면서 "남원 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이뤄온 성과 위에 남은 1년도 남원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